

민관 협업의 '상생 무역금융' 확산, 연내 10조원 조성

- 콜마·무신사·우리은행 158억원 출연하여 소비재 협력사에 2,740억원 지원
- 소비재 외 자동차·철강·조선업체 참여로 1.7조원 조성, 연내 10조원 조성 목표
- 한편, 추경 활용 3조원 긴급 지원 및 우리은행-무보 MOU 기반 3조원 우대금융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4.14(화) 장관 주재로 개최한 「상생 무역금융 확산 간담회」에서 중동전쟁으로 심화되는 대외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연대를 기반으로 연내 10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상생 무역금융(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은 수출기업, 민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상생 금융모델이다.

* 대기업·은행 출연 + 무보 보증 → 협력사 우대금융 지원(기업출연 대비 60~80배)

【 상생 무역금융(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운영구조 】

구 분	내 용
출연기업	기금출연, 협력사 추천
협약은행	기금출연(기업출연대비 평균 3배 이상), 대출실행, 금리우대(최대 2.5%), 보증료 지원
무보	협력사 대상 우대보증 제공 (보증비율·보증기간 우대, 보증료 할인, 심사기준 완화, 신속 보증 지원 등)
협력사	우대금융 이용(低금리·高한도)

지난해 8월 현대차·기아를 시작으로 HL그룹, 포스코, HD현대중공업이 상생 무역금융에 참여하였으며 이날 콜마, 무신사도 동참하여 현재까지 1조 7천억원을 조성하였다. 그간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공업을 중심으로 상생 무역금융이 빠르게 확산되어 왔으며, 이번에 새롭게 소비재 기업들이 동참하여 의미가 크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콜마는 화장품 원재료 공급, 연구개발 등 K-뷰티 산업 생태계의 핵심 공급망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우리은행과 함께 총 100억원을 출연하여 160개 이상의 중소·중견 협력사에 총 1,74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한, 무신사는 K-패션 선도기업으로 우리은행과 함께 57.5억원을 출연하여 200개 이상의 영세·중소 협력사에 총 1,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소비재 산업 특성상 영세·중소 협력사가 많아 소액 무역 금융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을 도입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상생 무역금융(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출연 및 운영 현황 】

산업	기업(협약시기)	은행	기업 출연(억원)	은행 출연(억원)	금융공급(억원)
자동차	현대·기아차 ('25.8.)	하나	100	300	6,300
	HL만도 ('25.9.)	하나	20	60	1,020
철강	포스코 ('25.11.)	기업	50	150	3,540
조선	HD현대중공업 ('26.1)	하나	50	230	3,940
뷰티·헬스	한국콜마 ('26.4.)	우리	20	80	1,740
패션·플랫폼	무신사 ('26.4.)	우리	10	47.5	1,000
합 계			250	867.5	17,540

또한,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총 3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긴급 공급한다. 석유화학, 에너지 등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주요 수입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입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수출기업 대상 3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하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생 무역금융은 단순한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우리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지켜내는 핵심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사를 지켜내는 지금의 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생 무역금융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4040)
		담당자	서기관	김애경 (044-203-4041)
			사무관	이선녕 (044-203-4049)



□ (일시·장소) '26.4.14(화), 14:30-16:0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 정부 산업부 장관, 무역투자실장, 무역정책관
기관·협회 무보, 무역협회,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
산업계·은행 한국콜마, 무신사 등 수출기업 및 우리은행

< 상생 무역금융 확산 간담회 참석기업 >

업종	대표기업	업종	대표기업
소비재	한국콜마	조선	한화오션
	무신사		삼성중공업
반도체·전자	SK 하이닉스	항공·방산	한화에어로
	삼성전자		현대로템
일반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 (주요내용) 민관 협업에 기반한 상생 무역금융 확대 방안 모색

○ ①우리은행-무보, ②한국콜마*-우리은행-무보, ③무신사-우리은행-무보간 총 3건 업무협약 순차적 체결

* 한국콜마(화장품),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연우(화장품용기) 3社 공동 협약

○ 기업별 상생금융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지속적 참여 당부

□ 세부계획(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30~14:40 (10')	10' < 1부 > 업무 협약	
	(04') 우리은행-무보 포괄적 업무협약	
	(03') 한국콜마-우리은행-무보 업무협약	
	(03) 무신사-우리은행-무보 업무협약	
14:40~16:00 (80')	80' < 2부 > 상생 무역금융 확산 간담회	
	(05') 모두 발언	산업부 장관
	(10) 상생 무역금융 제도 소개 및 사례	산업부 / 무보
	(60') 참석자 발언	전체 참석자
(05')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 업무 협약식, 간담회 모두말씀까지 공개

붙임2

상생 무역금융(SMILE)* 설명자료

* SMILE(Supply-chain Miracle by Leverage) : 수출기업·민간은행 출연과 무보 보증(레버리지)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제공으로 "기업을 웃게 한다"는 의미

- (목적)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중소중견 상생 협력 기반 구축 및 금융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수출생태계 구축
- (내용) 기업, 은행 등 민간출연금 재원을 활용하여 중소·중견 협력사대상 低비용·高한도 등 양질의 무역금융 공급 (기업출연금 대비 60~80배 지원)

【 상생 무역금융(SMILE) 운영구조 】

구분	내용
출연기업	기금출연, 협력사 추천
협약은행	기금출연(기업출연대비 평균 3배 이상), 대출실행, 금리우대(최대 2.5%), 보증료 지원
무보	협력사 대상 우대보증 제공 (보증비율·보증기간 우대, 보증료 할인, 심사기준 완화, 신속 보증 지원 등)
협력사	우대금융 이용(低금리·高한도)

- (기대효과) 대·중소 산업 공급망 강화 및 생산적 금융 확산
 - (출연기업) 협력사 지원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법인세 절감(최대 35%)
 - (협약은행) 신규고객 유치, 무위험 대출자산(무보 보증률 100%), 법인세 절감(최대 25%)
 - (협력사) 금융비용 절감(신용대출 대비 최대 2.5%p 우대), 출연기업과 안정적 관계
- (추진경과) 자동차·철강·조선·소비재 등 주요 기업 및 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총 1,117.5억원 신규 확보, 1조 7,540억원 무역금융 공급 예정 (총 6차)

【 상생 무역금융 출연 및 운영 현황 】

산업	기업(협약시기)	은행	기업 출연(억원)	은행 출연(억원)	금융공급(억원)
자동차	현대·기아차 ('25.8.)	하나	100	300	6,300
	HL만도 ('25.9.)	하나	20	60	1,020
철강	포스코 ('25.11.)	기업	50	150	3,540
조선	HD현대중공업 ('26.1)	하나	50	230	3,940
뷰티·헬스	한국콜마 ('26.4.)	우리	20	80	1,740
패션·플랫폼	무신사 ('26.4.)	우리	10	47.5	1,000
합 계			250	867.5	17,540